

2021년  
고3 4모

2021년 시행 고3 4월 학평 국어 문학 김씨열행록, 검녀 변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신 · 수능형 문제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장 시랑의 아들과 혼인한 신부 김씨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 어느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된다. 어느 날 김씨는 노파와 젊은 남자가 몰래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에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상급을 더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왔던 사람이 누구이며, 밤늦게 왔다가 돌아간 연고를 묻고, 수작은 무엇을 장황히 하였나 하는 것을 낱낱이 물으니, 노파가 그 도령은 차마 기망할 길 없는지라, 길이 탄식하고 조용히 아뢰되,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늦게야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없기로 양자를 들인즉, 이 자식이 노모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를 불고(不顧)하옵고 주색잡기에만 눈을 뜨옵고, 성행(性行)이 불량하여 싸움하기와 사람 치기를 즐기옵는 탓에 항상 근심하옵더니, 저 안마을 큰 기와집은 장 시랑 댁이온데, 장 시랑의 전취 부인 연씨는 천고에 없는 요조숙녀이옵더니, 자제 한 분만 두고 불행히 일찍 상배(喪配)하시고 후취 부인 유씨 또한 인물이 절등하옵고 재질이 능란하시오나, 다만 전실 자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 시랑이 늘 근심하더니, 전실 자제의 혼인을 아무 곳 김씨 댁으로 지내옵는데, 그 유씨 부인이 흥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종가를 삼으려 하여,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

[A] 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자객을 구한즉, 불초한 자식이 대답하거늘, 노파가 아무리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씨 부인에게 바쳤삽더니, 그 뒤로 시랑의 행차가 바로 돌아오

시때, 유씨가 황망공겁(慌忙恐怯)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머리를 곳간 속 쌀독에 넣고 곳간 문을 잠가옵는데, 장 시랑이 돌아오는 길로 대청에 좌기(坐起)하옵시고 침식을 전폐하신 채 이때까지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시니 어찌할 길이 없는지라. 이리므로 유씨만 근심할 뿐 아니오라 불초한 자식이 또한 겁을 내어 장차 멀리 도주하려는 뜻을 두고 노파를 작별하러 왔사온즉, 그 자식의 소행은 죽었사옵건만 자식이라 칭하던 것이 멀리 간다 하기로 부득이하여 수작하옵나니, 공겁(恐怯)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하나이다.”

김씨가 주인 노파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니 모골이 송연하고 머리칼이 곤두서는지라.

역지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 의복을 정제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노파에게서 떠나 바로 장 시랑 댁을 찾아가 시랑께 뵈옵기를 청하니, 시랑이 병을 핑계하고 손님 보기를 거절하거늘, 백단(百端)으로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나중에는 아무 동네 아무 집 자식이 중대한 사단이 있사옵기로 안으로 들어가 뵈옵기를 청하나이다 한즉, 그제야 들어오라 하거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시랑께 뵈옵고 아뢰기를,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니오라 궁천지통(窮天之痛)한 죄인 자부(子婦)이옵기로, 상고하여 볼 일이 있사와 염치를 불고하옵고 왔사오니 댁의 곳간 문 열쇠를 주시오면 상고하올 일이 있삽나이다.”

유씨 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어찌할 줄 모르나, 또한 곳간 문 열쇠를 내어놓지 아니할 수 없어 열쇠를 내어놓는지라.

신부가 열쇠를 가지고 급급히 곳간 문을 열고 쌀독을 헤치고 보니 신랑의 머리가 있는지라. 이를 보매 분하고 놀라운 것이야 어찌 다 형언하리오.

그 머리를 안고 시랑의 앞에 나아가 전후 사실

을 낱날이 아뢰고는,

“소녀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불고사체(不顧事體)하고 이와 같이 사실을 밝혔사온즉, 이후의 일은 존구(尊舅)의 처분이오니 소녀는 이제 본가(本家)로 돌아가겠나이다.”

인하여 하직하고 본가로 돌아와 친정 부모를 뵈옵고 전후 사실을 낱날이 고하니, 그 부모가 생각하여도 만고에 없는 대변(大變)이요,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딸을 더욱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더라.

- '김씨열행록'

(나)

[앞부분 줄거리] 명성이 높은 진사 소응천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그의 소실이 되기를 청한다. 어느 날 여인이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는다.

저는 본디 모씨 댁의 종이였습니다. 마침 주인 댁의 소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고로 특히 소저의 소꿉 시중을 듣게 하였고, 장래 시집갈 적에 교전 비로 보내려 했더랍니다. 그런데 나이 겨우 아홉 살 적에 주인댁이 어느 권세가의 손에 멸망을 당해 논밭도 전부 빼앗기고 오직 소저와 유모만이 목숨을 부지해서 ㉠ 타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따라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지요.

소저는 십 세를 갓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났지요. 이 년이 지나 비로소 검객을 만나 칼 쓰는 법을 익혔고, 오 년이 지나자 드디어 공중을 날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명한 도회지로 다니면서 묘기를 팔아 여러 천 냥의 돈을 벌어서 보검 네 자루를 샀지요. 드디어 묘기를 자랑하러 온 사람인 양하고 ㉡ 원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달빛을 타고 칼을 휘둘러 칼날이 번득이는 곳에 떨어진 머리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원수의 집 안팎식구가 모두 붉은 피를 쏟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날고 춤추며 돌아왔지요. 소저는 목욕하고 여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술과 안주를 마련해 가지고 ㉢ 부모의 산소에 가서 복수한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아남더라도 가문을 이을

도리가 없구나. 남장으로 팔 년간 천 리를 횡행하였으니, 비록 남에게 몸을 더럽힌 바 없으나 어찌 규중처자의 행실이라고 하겠느냐? 혼인을 하고 싶어도 배필이 나서지 않을 것이요, 배필이 있다면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또한 나의 가문이 대대 독신으로 손이 끊겨서 억지로라도 가까이 댈 수 있는 일가가 없으니 나의 혼주가 되어 줄 분인들 어디 있겠느냐? 나는 여기서 자결하여 죽는 것만 못하다. 너는 나의 한쌍 보검을 팔아서 나를 이곳에 묻어 다오. 죽은 몸이나마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너의 처지는 나와 다르니 굳이 나를 따라 죽을 것이 없느니라. 나를 땅에 묻은 다음에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 기사(奇士)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도록 하여라. 너 역시 기이한 포부와 걸출한 기상이 있는데 어찌 평범한 남자에게 일생을 머리 숙이고 고분고분 살겠느냐?”

(중략)

저는 그대로 남장을 하고서 삼 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들으니 고명한 선비로 선생 같은 분이 없다가에 스스로 결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의 능하신 바를 엿보니 문장의 잔재주와 천문·역학·산학 및 사주·점·부적·도참 등 잡술 뿐이요, 마음을 닦고 몸을 지키는 큰 방법과 세상을 다스리고 후세에 모범을 보이는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기사라는 이름을 듣고 있다니 당치 않습니다. 실상이 없는 이름은 평상시에도 화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난세를 당해서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선생은 이제부터 근신을 해도 안온하게 일생을 마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에 은거하지 마시고 그저 적당하고 평범하게 전주 같은 ㉣ 큰 도회지에 살면서 아전 부류의 자제나 가르치며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고 달리 포부를 갖지 않으시면 세상의 화를 면할 수 있으리라.

제가 선생이 기사가 못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모시고 산다면 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는 것이요, 소저의 당부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떠나렵니다. ㉤ 먼바다와 호젓한 산중에서 노닐렵니다. 남장을 그대로 두었으니 가뿐히 차려입고 나설 것입니다. 어찌 다시 여자로

서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얽매어 살아  
아가리까?

- '검녀'

**[학평 변형 문제]**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사의 흐름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표출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인물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학평 변형 문제]**

2.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부'는 궁금한 사실을 알기 위해 '노파'를 위협했다.
  - ② '유씨 부인'은 자신의 자식을 종가로 삼기 위해 '연씨'의 자제를 죽이려 하였다.
  - ③ '김씨'는 혼인을 하고 며칠이 지나고 자객에 의해 '신랑'을 잃었다.
  - ④ '장 시랑'은 병으로 인해 결국 '김씨'를 만나지 못했다.
  - ⑤ '친정 부모'는 '딸'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장 시랑'을 찾아갔다.

**[학평 변형 문제]**

3. [A]에 드러난 '노파'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처지를 몰라주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에 있었던 특정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 ④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러내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여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다.

**[학평 변형 문제]**

4.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위기에 처한 '소저'와 '저'를 위해 소응천이 마련해준 곳이다.
  - ② ㉡ : '소저'가 부모의 복수를 위해 '저'와 함께 무예를 익힌 곳이다.
  - ③ ㉢ : '소저'가 자신이 한 일을 죽은 부모에게 고한 곳이다.
  - ④ ㉣ : '저'가 '선생'과 함께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곳이다.
  - ⑤ ㉤ : '저'가 '선생'과 남은 생을 함께 보낼 곳이다.

**[학평 변형 문제]**

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김씨열행록'에서 '김씨'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인물이며, '검녀'에서 '저'는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인물이다.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남장을 수단으로 하여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가부장제의 기존 질서를 따르는 것에 비해, '저'는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결국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한다.

- ① (가)의 '김씨'가 '의복을 정제하고' '장 시랑'을 찾아가는 것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남성의 힘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군.
- ② (가)의 '김씨'가 '곳간 문을 열어' 사건의 전모를 밝힌 후에 '이후의 일은 존구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군.
- ③ (나)의 '저'가 '선생'이 '기사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 '당치 않'다고 하는 것에서,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닌 사대부가 당시에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④ (나)의 '저'가 '소저'의 당부에 따라 '산림에 은거하'는 '선생'을 찾아간 것에서,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군.

⑤ (가)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사실을 밝혔'다는 것과 (나)의 '저'가 '남장을 하고' '칼 쓰는 법을 익혔'다는 것에서,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장 시랑의 아들과 혼인한 신부 김씨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 어느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된다. 어느 날 김씨는 노파와 젊은 남자가 몰래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에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상급을 더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왔던 사람이 누구이며, 밤늦게 왔다가 돌아간 연고를 묻고, 수작은 무엇을 장황히 하였나 하는 것을 낱낱이 물으니, 노파가 그 도령은 차마 기망할 길 없는지라, 길이 탄식하고 조용히 아뢰되,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늦게야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없기로 양자를 들인즉, 이 자식이 노모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를 불고(不顧)하옵고 주색잡기에만 눈을 뜨웁고, 성행(性行)이 불량하여 싸움하기와 사람 치기를 즐기우는 탓에 항상 근심하옵더니, 저 안마을 큰 기와집은 장 시랑 댁이 온데, 장 시랑의 전취 부인 연씨는 천고에 없는 요조숙녀이옵더니, 자제 한 분만 두고 불행히 일찍 상배(喪配)하시고 후취 부인 유씨 또한 인물이 절등하옵고 재질이 능란하시오나, 다만 전실 자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 시랑이 늘 근심하더니, 전실 자제의 혼인을 아무 곳 김씨 댁으로 지내었는데, 그 유씨 부인이 흥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종가를 삼으려 하여,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자객

을 구한즉, 불초한 자식이 대답하거늘, 노파가 아무리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씨 부인에게 바쳤삽더니, 그 뒤로 시랑의 행차가 바로 돌아오시매, 유씨가 황망공겁(惶忙恐怯)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머리를 곳간 속 쌀독에 넣고 곳간 문을 잠가 읊는데, 장 시랑이 돌아오시는 길로 대청에 좌기(坐起)하옵시고 침식을 전폐하신 채 이때까지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시니 어찌할 길이 없는지라. 이러므로 유씨만 근심할 뿐 아니오라 불초한 자식이 또한 겁을 내어 장차 멀리 도주하려는 뜻을 두고 노파를 작별하러 왔사온즉, 그 자식의 소행은 죽었사옵건만 자식이라 칭하던 것이 멀리 간다 하기로 부득이하여 수작하옵나니, 공겁(恐怯)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하나이다.”

김씨가 주인 노파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니 모골이 송연하고 머리칼이 곤두서는지라.

역지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 의복을 정제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노파에게서 떠나 바로 장 시랑 댁을 찾아가 시랑께 뵈옵기를 청하니, 시랑이 병을 핑계하고 손님 보기를 거절하거늘, 백단(百端)으로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나중에는 아무 동네 아무 집 자식이 종대한 사단이 있사옵기로 안으로 들어가 뵈옵기를 청하나이다 한즉, 그제야 들어오라 하거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시랑께 뵈옵고 아뢰기를,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니오라 궁천지통(窮天之痛)한 죄인 자부(子婦)이옵기로, 상고하여 볼 일이 있사와 염치를 불고하옵고 왔사오니 댁의 곳간 문 열쇠를 주시오면 상고하올 일이 있삽나이다.”

유씨 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어찌할 줄 모르나, 또한 곳간 문 열쇠를 내어놓지 아니할 수 없어 열쇠를 내어놓는지라.

신부가 열쇠를 가지고 급급히 곳간 문을 열고 쌀독을 헤치고 보니 신랑의 머리가 있는지라. 이를 보매 분하고 놀라운 것이야 어찌 다 형언하리오.

그 머리를 안고 시랑의 앞에 나아가 전후 사실을 낱낱이 아뢰고는,

“소녀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불고사

체(不顧事體)하고 이와 같이 사실을 밝혔사온즉, 이후의 일은 존구(尊舅)의 처분이오니 소녀는 이제 본가(本家)로 돌아가겠나이다.”

인하여 하직하고 본가로 돌아와 친정 부모를 뵈옵고 전후 사실을 낱낱이 고하니, 그 부모가 생각하여도 만고에 없는 대변(大變)이요,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딸을 더욱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더라.

- '김씨열행록'

(나)

[앞부분 줄거리] 명성이 높은 진사 소옹천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그의 소실이 되기를 청한다. 어느 날 여인이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는다.

저는 본디 모씨 덕의 종이었습시다. 마침 주인 덕의 소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고로 특히 소저의 소꿉 시종을 들게 하였고, 장래 시집갈 적에 교전 비로 보내려 했더랍니다. 그런데 나이 겨우 아홉 살 적에 주인덕이 어느 권세가의 손에 멸망을 당해 논밭도 전부 빼앗기고 오직 소저와 유모만이 목숨을 부지해서 타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따라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지요.

소저는 십 세를 갓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났지요. 이 년이 지나 비로소 검객을 만나 칼 쓰는 법을 익혔고, 오 년이 지나자 드디어 공중을 날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명한 도회지로 다니면서 묘기를 팔아 여러 천 냥의 돈을 벌어서 보검 네 자루를 샀지요. 드디어 묘기를 자랑하러 온 사람인 양하고 원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달빛을 타고 칼을 휘둘러 칼날이 번득이는 곳에 떨어진 머리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원수의 집 안팎식구가 모두 붉은 피를 쏟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날고 춤추며 돌아왔지요. 소저는 목욕하고 여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술과 안주를 마련해 가지고 부모의 산소에 가서 복수한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아남더라도 가문을 이을 도리가 없구나. 남장으로 팔 년간 천 리를 횡행하였으니, 비록 남에게 몸을 더럽힌 바 없으나 어찌

규중처자의 행실이라고 하겠느냐? 혼인을 하고 싶어도 배필이 나서지 않을 것이요, 배필이 있다 한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또 한 나의 가문이 대대 독신으로 손이 끊겨서 억지로라도 가까이 댈 수 있는 일가가 없으니 나의 혼주가 되어 줄 분인들 어디 있겠느냐? 나는 여기서 자결하여 죽는 것만 못하다. 너는 나의 한쌍 보검을 팔아서 나를 이곳에 묻어 다오. 죽은 몸이나마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너의 처지는 나와 다르니 굳이 나를 따라 죽을 것이 없느니라. 나를 땅에 묻은 다음에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 기사(奇士)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도록 하여라. 너 역시 기이한 포부와 걸출한 기상이 있는데 어찌 평범한 남자에게 일생을 머리 숙이고 고분고분 살겠느냐?”

(중략)

저는 그대로 남장을 하고서 삼 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들으니 고명한 선비로 선생 같은 분이 없다가에 스스로 결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의 능하신 바를 엿보니 문장의 잔재주와 천문·역학·산학 및 사주·점·부적·도참 등 잡술 뿐이요, 마음을 닦고 몸을 지키는 큰 방법과 세상을 다스리고 후세에 모범을 보이는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기사라는 이름을 듣고 있다니 당치 않습니다. 실상이 없는 이름은 평상시에도 화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난세를 당해서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선생은 이제부터 근신을 해도 안온하게 일생을 마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에 은거하지 마시고 그저 적당하고 평범하게 전주 같은 큰 도회지에 살면서 아전 부류의 자제나 가르치며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고 달리 포부를 갖지 않으시면 세상의 화를 면할 수 있으리다.

제가 선생이 기사가 못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모시고 산다면 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는 것이요, 소저의 당부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떠나렵니다. 먼바다와 호젓한 산중에서 노닐렵니다. 남장을 그대로 두었으니 가뿐히 차려입고 나설 것입니다. 어찌 다시 여자로서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얽매어 살아가리까?

- '검녀'

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여성 주인공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반동 인물의 방해로 인해 복수에 실패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남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애초에 남편을 받들며 살아가는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비현실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7.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 ③ 초현실적인 인물을 사건에 개입시켜 인물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④ 잦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특정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해당 행위의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8.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김씨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있다.
- ② 노파의 양자는 유씨 부인의 사주를 받고 김씨의 신랑을 죽였다.
- ③ 김씨는 모두 누명을 벗고 본가로 돌아갔다.
- ④ 장 시랑의 연씨 부인은 유씨의 인물이 절등함을 시기, 질투했다.
- ⑤ 노파의 고백을 통해 김씨는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

9.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② 중재자를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③ 인물의 심리 변화를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비현실적인 공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해당 공간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소재의 다양한 의미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0.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소저가 아홉 살 적에 집안이 멸망하여 타관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 ② 소옹천에게 찾아온 여인은 소실이 되기를 청하였다.
- ③ 소저는 보검 네 자루를 가지고 원수의 집으로 가서 복수를 성공했다.
- ④ 혼인에 대한 마음이 원래부터 없었던 소저는 끝내 죽음을 택하고 말았다.
- ⑤ 소옹천은 여인의 기대와는 다른 인물이라서 여인은 실망하였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장 시랑의 아들과 혼인한 신부 김씨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 어느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된다. 어느 날 김씨는 노파와 젊은 남자가 몰래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에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상급을 더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왔던 사람이 누구이며, 밤늦게 왔다가 돌아간 ㉠ 연고를 묻고, 수작은 무엇을 장황히 하였나 하는 것을 날날이 물으니, 노파가 그 도령은 차마 ㉡ 기말할 길 없는지라, 길이 탄식하고 조용히 아뢰되,  
 “㉢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늦게야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없기로 양자를 들인즉, 이 자식이 노모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를 불고(不顧)하고 주색잡기에만 눈을 뜨웁고, 성행(性行)이 불량

하여 싸움하기와 사람 치기를 즐기옵는 탓에 항상 근심하옵더니, 저 안마을 큰 기와집은 장 시랑 덕이온데, 장 시랑의 전취 부인 연씨는 천고에 없는 요조숙녀이옵더니, ㉠ 자제 한 분만 두고 불행히 일찍 ㉡ 상배(喪配)하시고 후취 부인 유씨 또한 인물이 절등하옵고 재질이 능란하시오나, 다만 전실 자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 시랑이 늘 근심하더니, 전실 자제의 혼인을 아무 곳 김씨 덕으로 지내옵는데, 그 유씨 부인이 흥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종가를 삼으려 하여,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자객을 구한즉, 불초한 자식이 대답하거늘, 노파가 아무리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씨 부인에게 바쳤삽더니, 그 뒤로 시랑의 행차가 바로 돌아오시매, 유씨가 황망공겁(慌忙恐怯)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머리를 곳간 속 쌀독에 넣고 곳간 문을 잠가옵는데, 장 시랑이 돌아오시는 길로 대청에 좌기(坐起)하옵시고 침식을 전폐하신 채 이때까지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시니 어찌할 길이 없는지라. 이따로 유씨만 근심할 뿐 아니오라 불초한 자식이 또한 겁을 내어 장차 멀리 도주하려는 뜻을 두고 노파를 작별하러 왔사온즉, 그 자식의 소행은 죽었사옵건만 자식이라 칭하던 것이 멀리 간다 하기로 부득이하여 수작하옵나니, 공겁(恐怯)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 하나이다.”

김씨가 주인 노파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니 모골이 송연하고 머리칼이 곤두서는지라.

억지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 의복을 정제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노파에게서 떠나 바로 장 시랑 덕을 찾아가 시랑께 뵈옵기를 청하니, 시랑이 병을 핑계하고 손님 보기를 거절하거늘, 백단(百端)으로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나중에는 아무 동네 아무 집 자식이 종대한 사단이 있사옵기로 안으로 들어가 뵈옵기를 청하나이다 한즉, 그제야 들어오라 하거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시랑께 뵈옵고 아뢰기를,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니오라 궁천지통(窮天之痛)한 죄인 자부(子婦)이옵기로, 상고하여 불 일이 있사와 염치를 불고하옵고 왔사오니 덕의 곳

간 문 열쇠를 주시오면 상고하올 일이 있삽나이 다.”

유씨 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어찌할 줄 모르나, 또한 곳간 문 열쇠를 내어놓지 아니할 수 없어 열쇠를 내어놓는지라.

신부가 열쇠를 가지고 급급히 곳간 문을 열고 쌀독을 헤치고 보니 신랑의 머리가 있는지라. 이를 보매 분하고 놀라운 것이야 어찌 다 형언하리오.

그 머리를 안고 시랑의 앞에 나아가 전후 사실을 낱낱이 아뢰고는,

“소녀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불고사체(不顧事體)하고 이와 같이 사실을 밝혔사온즉, 이후의 일은 존구(尊舅)의 처분이오니 소녀는 이제 본가(本家)로 돌아가겠나이다.”

인하여 하직하고 본가로 돌아와 친정 부모를 뵈옵고 전후 사실을 낱낱이 고하니, 그 부모가 생각하여도 만고에 없는 대변(大變)이요, ㉢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딸을 더욱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더라.

- '김씨열행록'

(나)

[앞부분 줄거리] 명성이 높은 진사 소응천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그의 소실이 되기를 청한다. 어느 날 여인이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는다.

저는 본디 모씨 덕의 종이였습니다. 마침 주인 덕의 소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고로 특히 소저의 소꿉 시종을 들게 하였고, 장래 시집갈 적에 교전비로 보내려 했더랍니다. 그런데 나이 겨우 아홉살 적에 주인덕이 어느 권세가의 손에 멸망을 당해 논밭도 전부 빼앗기고 오직 소저와 유모만이 목숨을 부지해서 ㉣ 타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따라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지요.

소저는 십 세를 갓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났지요. 이 년이 지나 비로소 검객을 만나 칼 쓰는 법을 익혔고, 오년이 지나자 드디어 공중을 날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명한 도회지로 다니면서 묘기를 팔아 여러 천 냥의 돈을 벌어서 보검 네 자루를 샀지요. 드디어 묘기를 자랑하러 온 사람인 양

하고 원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달빛을 타고 칼을 휘둘러 칼날이 번득이는 곳에 떨어진 머리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원수의 집 안팎식구가 모두 붉은 피를 쏟고 쓰러진 것입니다. 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날고 춤추며 돌아왔지요. 소저는 목욕하고 여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술과 안주를 마련해 가지고 부모의 산소에 가서 복수한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아남더라도 가문을 이을 도리가 없구나. 남장으로 팔 년간 천 리를 횡행하였으니, 비록 남에게 몸을 더럽힌 바 없으나 어찌 규중처자의 행실이라고 하겠느냐? 혼인을 하고 싶어도 배필이 나서지 않을 것이요, 배필이 있다면 한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또한 나의 가문이 대대 독신으로 손이 끊겨서 역지로라도 가까이 댈 수 있는 일가가 없으니 나의 혼주가 되어 줄 분인들 어디 있겠느냐? 나는 여기서 자결하여 죽는 것만 못하다. 너는 나의 한쌍 보검을 팔아서 나를 이곳에 묻어 다오. 죽은 몸이나마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너의 처지는 나와 다르니 굳이 나를 따라 죽을 것이 없느니라. 나를 땅에 묻은 다음에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 기사(奇士)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도록 하여라. 너 역시 기이한 포부와 결출한 기상이 있는데 어찌 평범한 남자에게 일생을 머리 숙이고 고분고분 살겠느냐?”

(중략)

저는 그대로 남장을 하고서 삼 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들으니 고명한 선비로 선생 같은 분이 없다가에 ㉕ 스스로 결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의 능하신 바를 엿보니 문장의 잔재주와 천문·역학·산학 및 사주·점·부적·도참 등 잡술뿐이요, 마음을 닦고 몸을 지키는 큰 방법과 세상을 다스리고 후세에 모범을 보이는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기사라는 이름을 듣고 있다니 당치 않습니다. 실상이 없는 이름은 평상시에도 화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난세를 당해서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선생은 이제부터 ㉖ 근신을 해도 안온하게 일생을 마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에 은거하지 마

시고 그저 적당하고 평범하게 전주 같은 큰 도회지에 살면서 아전 부류의 자제나 가르치며 의식의 총족을 도모하고 달리 포부를 갖지 않으시면 세상의 화를 면할 수 있으리다.

제가 선생이 기사가 못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모시고 산다면 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는 것이요, 소저의 당부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떠나렵니다. 먼바다와 호젓한 산중에서 노닐렵니다. 남장을 그대로 두었으니 가뻐히 차려입고 나설 것입니다. 어찌 다시 여자로서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얽매어 살아가리까?

- '검녀'

1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 ② 공간적 배경에 대해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감정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 ④ 부정적 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이 겪는 시련과 고난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⑤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인다.

12. ㉔~㉖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일이 벌어진 까닭.
- ② ㉕ : 남을 그럴듯하게 속임.
- ③ ㉖ : 아내의 상을 당함.
- ④ ㉔ : 제가 나서 자란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고장.
- ⑤ ㉖ : 지위나 신분에 따른 위엄과 신망.

13.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김씨가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간 이유.
- ② 장 시랑의 전취 부인과 후취 부인의 특징.
- ③ 유씨 부인이 김씨의 신랑을 죽인 이유.
- ④ 김씨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한 이유.
- ⑤ 유씨 부인이 신랑의 머리를 숨긴 곳.



14.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여인이 주인댁 소저의 소꿉 시중을 듣게 된 이유.
  - ② 소저가 부모의 복수를 위해 준비한 대략의 기간.
  - ③ 소자가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
  - ④ 여인이 소응천의 집으로 찾아온 이유.
  - ⑤ 소응천이 진정한 기사로 불리는 이유.

1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노파가 양자를 들이게 된 이유에 해당한다.
  - ② ㉡ : 아버지의 후취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김씨의 신랑에 해당한다.
  - ③ ㉢ :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생한 것과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이 담긴 것이다.
  - ④ ㉣ : 복수를 성공한 기쁨으로 인한 행동이다.
  - ⑤ ㉣ : 소저의 죽기 전 부탁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학평 수록 외 지문**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화씨가 시랑의 침석에서 한담설화(閑談屑話)<sup>1)</sup>를 하다가 유씨의 말이 나오는지라. 화씨가 참담한 기색을 띠어 은근히 탄식하다가 말하되,

“세상일이 증거라 하는 것도 없지 아니한 것이로다. 유씨 부인인들 지하에서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리오.”

시랑이 그 말의 뜻을 다시 물은즉, 화씨가 백배 사죄하여 아뢰기를,

“경솔히 발한 말이니 과연 뜻이 없거늘, 이와 같이 다시 물으시니, 그 죄가 죽기를 청하나이다.”

시랑이 강박하지 못하여 묻기를 그치고 지나간 일을 날날이 생각한 뒤 말하기를,

“갑준의 머리를 비록 광에서 찾았으나 내 일찍이 유씨에게는 한 말도 문초(問招)한 것 없이 죽인 것이 너무 촉급하였도다. 경솔함을 면하지 못하리로다.”

이와 같이 반복하여 생각할 적에 화씨는 짐짓 잠든 체하면서도 동정을 살피더니, 시랑이 화씨가 잠든 줄 알고 탄식불이하다가 촉급하고 경솔함을 탄식함이 부지중에 입 밖에 나가늘, 화씨가 그제야 시랑이 김씨를 의심하던 마음을 짐작하고,

‘이제는 내 계교가 행하리라.’

이 생각으로 때때로 김씨의 단처(短處)<sup>2)</sup>를 발작(發作)할새, 매양 제 입으로 바로 일컫지도 아니하며, 시랑에게 바로 말하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사람을 시켜 과거 설화를 시랑의 귀에 들어가면 의심될 만큼 하니, 과연 시랑이 의심되는 사단이 점점 깊어 전후의 일을 생각해 본즉, 신혼 여자가 남북으로 나서서 주막에 주유한 일도 규중부녀의 행사가 아니요, 또한 다시 남북으로 주유팔방(周遊八方)한 일도 여자로서는 못할 일이라. 생각할수록 두려운 마음이 일어 평일에 사랑하던 마음이 풀린즉, 자연히 사색이 전일과는 사뭇 다른지라.

이로부터 화씨가 틈을 얻어 날마다 간언(奸言)으로 참소(讒訴)하되,

“어린 신랑이 첫날밤을 다 지내지 못하였는데, 수태하여 남아를 낳은 것이 천하에 희한한 일이라.”

겉으로는 좋은 말로 하나 속으로는 의심이 되게 한즉, 시랑이 점점 의심이 깊어 해룡도 진정손자로 알지 않으니, 김씨 그 사색을 짐작하고 분한 마음이 측량할 길 없으니, 하늘과 땅에 두고 하소연하며 귀신에게나 증거할 일이라.

즉시 자결하여 세상을 잊고자 하다가 다시금 생각한즉, 경솔히 죽으면 의심이 더욱 들어 누명이 중할지라. 억지로 잔명(殘命)을 보전하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있으리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탄식으로 일을 삼아, 하늘이 무심하심을 원망하더라.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기는 시비 옥매더라. 옥매 천성이 사내 같고, 의기는 일월(日月) 같아, 만고정절(萬古貞節) 백옥 같은 김씨 부인이 이와 같이 누추한 의심을 받음을 본즉,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 혼자 헤아리되,

‘이는 모두 다 화씨가 꾸민 일이라. 제가 부인의 은덕(恩德) 깊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수로 대접하여 요악(妖惡)한 태도와 간사한 말로 만고정절을 이와 같이 모함하니, 내 마땅히 이와 같은 이를 죽여 후환을 없게 하고 나 또한 죽어 분한 마음을 설욕하리라.'

작성하고 ㉠ 죽일 꾀를 생각하되, 다만 도리가 없는지라.

이에 중히 값을 주고 독약을 구하여 만반 진수를 맛있게 장만하고 독약을 섞어 화씨의 방에 들어오는지라.

화씨가 요악한 태도로 음식을 제가 먹지 아니하고 시랑에게 올리니, 시랑이 사양하지 아니하고는 한 그릇을 먹은 후 자리를 옮기지 못한 채 세상을 하직하는지라.

이 광경에 화씨 또한 크게 놀라 어찌할 줄 모르다가 이윽히 생각하되,

‘이 일은 마땅히 고관(告官)하여 공정히 결정하리라.’

다짐하고, 유 태수에게 통기하여 전후의 죄악을 모두 다 김씨에게로 돌려보내는 뜻으로 글을 적어 밀통(密通)하되,

‘이번에 김씨를 잘 다스리면 유씨 부인의 원통한 죽음도 설한(雪恨)이 되리라.’

유 태수가 평생에 그 매씨의 죽음을 원통히 여기다가 화씨의 말을 듣고 의심이 깊어 김씨를 절통히 한하더니, 이때에 장 시랑의 상변이 나매 화씨의 밀통을 얻으니, 전후 곡절이 소상하고 분명한지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태수는 화씨의 밀통을 옮겨 여겨 옥매는 별도로 다른 옥에 가두고 문초하지 아니하고 김씨만 악형(惡刑)을 갖추어 문초한다. 김씨는 온갖 악형을 감내한 채 함구무언(緘口無言)하여 태수의 근심이 깊어가고 옥매는 아우인 금매가 자기 대신 옥에 갇혀 있게 한다.

옥매가 옥중을 떠나 밤으로 행장을 차려 경성으로 올라갈새, 밤낮으로 행하여 불기일(不其日)에 경성에 즉시 이르러서 원정(冤情)을 지어 승문고(升聞鼓)를 울린즉, 이때 황제가 경동하시어 연유를 물으시며, 원정을 올리거늘 하였으되,

“신첩은 관동 김씨가(家) 일개 비복으로 김씨 가문의 소저를 섬길새, 소저보다 신첩

이 두 해를 먼저 낳았삽기로 어려서부터 사적의 사소한 일까지도 신첩이 알지 못하는 바가 없사오니, 소저의 천성이 단정하고 엄숙하옵고 효열(孝烈)이 출천하와3) 어려서부터 규문(閨門)에 사범(師範)이 되올러니, 장성하오매 장씨 집안과 결혼할새 초혼 밤에 신랑의 머리를 잃사온 즉, 자분필사(自憤必死)하고자 하옵다가 백단 무죄하음을 발명할 뿐 아니오라, 신랑의 원수를 갚으려 하와 남복으로 개착하고 궁심먹득(窮心覓得)4)하온즉, 신랑의 계모 유 부인의 소위라, 신랑의 머리를 찾아 장 시랑에게 드린 즉, 시랑이 크게 노하여 그 집 세전구물(世傳舊物)과 전답 문권과 신랑의 머리를 김씨에게로 보내고 즉시 쇠를 집 좌우에 쌓고 불을 놓아 유부인 모자를 소멸하고 산중에 숨었삽더니, 천만의외에 김씨가 초혼 밤에 수태하여 십삭만에 남아를 낳은즉, 인간에게 절존망(絶存亡)하는 날이오라 조손이 상면 아니하지 못하리라 하고 다시 남복으로 주유팔방하여 그 시부를 모셔다가 조손이 단취(團聚)5)하오니 완연히 경가(慶家)가 되는지라. 그 시부의 우우양양(憂虞洋洋)함을 가장 민망히 여겨 미천한 화씨 여자를 천거하여 시부의 소실을 삼고 서로 섬길새 효성을 지극히 하옵더니, 화씨가 그 은혜를 잊삽고 일문의 전세(傳世)와 재물을 탐하여 김씨를 참소하오니, 만고 정절에 천지간 누명으로 해하려 하오니, 이와 같은 변고가 어디에 또 있사오리까?”

- ‘김씨열행록’

[어휘 풀이] 1) 한담설화(閑談屑話) : 심심풀이로 하는 자질구레한 말. 2) 단취(短處) : 부족하거나 모자란 점. 3) 효열(孝烈)이 출천하와 : 효행과 열행이 하늘이 낸 듯 지극하여. 4) 궁심먹득(窮心覓得) : 온갖 힘을 다 들여 고생한 끝에 겨우 찾아냄. 5) 단취(團聚) : 집안 식구나 친한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한자리에 모임.

16. [A]에 나타난 화씨의 말하기에 담긴 의도를 바르게 추리한 것은?

- ① 유씨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 ② 자신의 죄를 시인하여 반성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시랑이 김씨 부인을 의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옥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 ⑤ 시랑이 무고하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17. [B]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김씨 부인의 아들은 시랑과 상면했다.
- ② 옥매는 김씨 부인보다 두 살 연상인 비복이다.
- ③ 김씨 부인은 신랑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 ④ 김씨 부인의 신랑의 죽음은 유씨 부인과 관련이 있다.
- ⑤ 시랑은 김씨 부인이 아들을 낳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다.
- ② 자결까지도 염두에 둔 결단이다.
- ③ 김씨 부인의 주도 하에 계획된 것이다.
- ④ 김씨 부인에 대한 화씨의 태도가 빌미가 되었다.
- ⑤ 결국 김씨 부인과 옥매에게 또 다른 화(禍)를 초래하였다.

19. 윗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씨 부인은 왜 자결하려는 생각을 접게 되었을까?  
→ 자결하면 오히려 자신이 결백하지 않다는 오해를 살 것 같았기 때문일 거야.
- ② 옥매는 왜 화씨가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을까?

→ 김씨 부인의 천거로 인해 화씨가 시랑의 소실이 되었는데 김씨 부인을 모략하기 때문이겠지.

③ 화씨는 왜 시랑에게 김씨 부인의 단처(短處)를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 화씨가 시랑에게 직접 말하면 시랑은 그것을 단순한 험담으로 이해하여 그 내용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④ 옥매는 왜 승문고(升聞鼓)를 울렸을까?

→ 다른 사람의 누명을 쓴 옥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일 거야.

⑤ 화씨는 왜 김씨 부인을 참소했을까?

→ 시랑의 죽음을 계기로 김씨 부인에게 돌아갈 재물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들을 탐했기 때문일 거야.

**서술형 문제**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장 시랑의 아들과 혼인한 신부 김씨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 어느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된다. 어느 날 김씨는 노파와 젊은 남자가 몰래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에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상급을 더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왔던 사람이 누구이며, 밤늦게 왔다가 돌아간 연고를 묻고, 수작은 무엇을 장황히 하였나 하는 것을 낱말이 물으니, 노파가 ㉠ 그 도령은 차마 기망할 길 없는지라, 길이 탄식하고 조용히 아뢰되,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늦게야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없기로 양자를 들인즉, 이 자식이 노모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를 불고(不顧)하옵고 주색잡기에만 눈을 뜨옵고, 성행(性行)이 불량하여 싸움하기와 사람 치기를 즐기옵는 탓에 항상 근심하옵더니, 저 안마을 큰 기와집은 장 시랑 덕이 온데, 장 시랑의 전취 부인 연씨는 천고에 없는 요조숙녀이옵더니, 자제 한 분만 두고 불행히 일찍 상배(喪配)하시고 후취 부인 유씨 또한 인물이 절등하옵고 재질이 능란하시오나, 다만 전실을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 시랑이 늘 근심하더니,

전실 자제의 혼인을 아무 곳 김씨 댁으로 지내었는데, 그 유씨 부인이 흥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종가를 삼으려 하여,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자객을 구한즉, 불초한 자식이 대답하거늘, 노파가 아무리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씨 부인에게 바쳤습더니, 그 뒤로 시랑의 행차가 바로 돌아오시매, 유씨가 황망공겁(慌忙恐怯)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머리를 곳간 속 쌀독에 넣고 곳간 문을 잠가 읍는데, 장 시랑이 돌아오시는 길로 대청에 좌기(坐起)하옵시고 침식을 전폐하신 채 이때까지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시니 어찌할 길이 없는지라. 이리므로 유씨만 근심할 뿐 아니오라 불초한 자식이 또한 겁을 내어 장차 멀리 도주하려는 뜻을 두고 노파를 작별하러 왔사온즉, 그 자식의 소행은 죽었사옵건만 자식이라 칭하던 것이 멀리 간다 하기로 부득이하여 수작하옵나니, 공겁(恐怯)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하나이다.”

김씨가 주인 노파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니 모골이 송연하고 머리칼이 곤두서는지라.

억지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 의복을 정제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노파에게서 떠나 바로 장 시랑 댁을 찾아가 시랑께 뵈옵기를 청하니, 시랑이 병을 핑계하고 손님 보기를 거절하거늘, 백단(百端)으로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나중에는 아무 동네 아무 집 자식이 중대한 사단이 있사옵기로 안으로 들어가 뵈옵기를 청하나이다 한즉, 그제야 들어오라 하거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시랑께 뵈옵고 아뢰기를,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니오라 궁천지통(窮天之痛)한 죄인 자부(子婦)이옵기로, 상고하여 볼 일이 있사와 염치를 불고하옵고 왔사오니 댁의 곳간 문 열쇠를 주시오면 상고하올 일이 있삽나이다.”

유씨 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어찌할 줄 모르나, 또한 곳간 문 열쇠를 내어놓지 아니할 수 없어 열쇠를 내어놓는지라.

신부가 열쇠를 가지고 급급히 곳간 문을 열고 쌀독을 헤치고 보니 신랑의 머리가 있는지라. 이를 보매 분하고 놀라운 것이야 어찌 다 형언하리

오.

그 머리를 안고 시랑의 앞에 나아가 전후 사실을 낱낱이 아뢰고는,

“소녀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불고사체(不顧事體)하고 이와 같이 사실을 밝혔사온즉, 이후의 일은 존구(尊舅)의 처분이오니 소녀는 이제 본가(本家)로 돌아가겠나이다.”

인하여 하직하고 본가로 돌아와 친정 부모를 뵈옵고 전후 사실을 낱낱이 고하니, 그 부모가 생각하여도 만고에 없는 대변(大變)이요,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딸을 더욱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더라.

- '김씨열행록'

(나)

[앞부분 줄거리] 명성이 높은 진사 소응천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그의 소실이 되기를 청한다. 어느 날 여인이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는다.

저는 본디 모씨 댁의 종이였습니다. 마침 주인 댁의 소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고로 특히 소저의 소꿉 시중을 들게 하였고, 장래 시집갈 적에 교전비로 보내려 했더랍니다. 그런데 나이 겨우 아홉살 적에 주인댁이 어느 권세가의 손에 멸망을 당해 논밭도 전부 빼앗기고 오직 소저와 유모만이 목숨을 부지해서 타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따라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지요.

소저는 십 세를 갓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났지요. 이 년이 지나 비로소 검객을 만나 칼 쓰는 법을 익혔고, 오년이 지나자 드디어 공중을 날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명한 도회지로 다니면서 묘기를 팔아 여러 천 냥의 돈을 벌어서 보검 네 자루를 샀지요. 드디어 묘기를 자랑하러 온 사람인 양하고 원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달빛을 타고 칼을 휘둘러 칼날이 번득이는 곳에 떨어진 머리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원수의 집 안팎식구가 모두 붉은 피를 쏟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 우리는 하늘을 날고 춤추며 돌아왔지요. 소저는 목욕하고 여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술과 안주를 마련해 가지고 부모의 산소에 가서 복수한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아남더라도 가문을 이을 도리가 없구나. 남장으로 팔 년간 천 리를 횡행하였으니, 비록 남에게 몸을 더럽힌 바 없으나 어찌 규중처자의 행실이라고 하겠느냐? 혼인을 하고 싶어도 배필이 나서지 않을 것이요, 배필이 있다 한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또한 나의 가문이 대대 독신으로 손이 끊겨서 억지로라도 가까이 댈 수 있는 일가가 없으니 나의 혼주가 되어 줄 분인들 어디 있겠느냐? 나는 여기서 자결하여 죽는 것만 못하다. 너는 나의 한쌍 보검을 팔아서 나를 이곳에 묻어 다오. 죽은 몸이나마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너의 처지는 나와 다르니 굳이 나를 따라 죽을 것이 없느니라. 나를 땅에 묻은 다음에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 기사(奇士)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도록 하여라. 너 역시 기이한 포부와 결출한 기상이 있는데 어찌 평범한 남자에게 일생을 머리 숙이고 고분고분 살겠느냐?”

(중략)

저는 그대로 남장을 하고서 삼 년을 돌아다녔 습니다. 들으니 고명한 선비로 선생 같은 분이 없 다기에 스스로 결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의 능하신 바를 엿보니 문장의 잔재주와 천문·역학·산학 및 사주·점·부적·도참 등 잡술 뿐이요, 마음을 닦고 몸을 지키는 큰 방법과 세상을 다스리고 후세에 모범을 보이는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기사라는 이름을 듣고 있다니 당치 않습니다. 실상이 없는 이름은 평상시에도 화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난세를 당해서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선생은 이제부터 근신을 해도 안온하게 일생을 마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에 은거하지 마시고 그저 적당하고 평범하게 전주 같은 큰 도회지에 살면서 아전 부류의 자제나 가르치며 의식의 총족을 도모하고 달리 포부를 갖지 않으시면 세상의 화를 면할 수 있으리다.

제가 선생이 기사가 못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모시고 산다면 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는 것이요, 소저의 당부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떠나렵니다. 먼바다와 호젓한 산

중에서 노닐렵니다. 남장을 그대로 두었으니 가뿐히 차려입고 나설 것입니다. 어찌 다시 여자로서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얽매어 살아가리까?

- '검녀'

20. (가)의 시점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이 작품의 시점은 ~이다.'의 형태로 작성할 것.

21. (나)의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성상의 특징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을/를 활용하였다.'의 형태로 작성할 것.

22. ㉠이 지칭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은 ~을/를 의미한다.'의 형태로 작성할 것.

23. ㉡의 이유를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 때문이다.'의 형태로 작성할 것.

24. (나)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작성하시오.

<보기>

‘김씨열행록’에서 ‘김씨’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인물이며, ‘검녀’에서 ‘저’는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인물이다.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남장을 수단으로 하여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가부장제의 기존 질서를 따르는 것에 비해, ‘저’는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결국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한다.

25. 위의 두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티프를 작성하시오.

## 정답 및 해설

### 내신 · 수능형 문제

#### 1. <답> ①

'김씨'가 '노파'를 통해 '전후 사정'을 알게 되고 노파의 집을 떠나 '장 시랑 댁'을 찾아가 사실을 밝히기까지의 서사의 흐름을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라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역사적 사건은 이 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작품에서 인물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 ⑤ 과거와 현재의 빈번한 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 2. <답> ②

'그 유씨 부인이 흥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종가를 삼으려 하여,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답> ②

'노파'는 자신의 '양자'가 '신랑의 머리를 베'어 '유씨 부인에게 바쳤'던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고, '공겁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 <답> ③

'소저'가 '부모의 산소'를 찾아가 '복수한 사실을 고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① 위기에 처한 '소저'와 '저'가 몸을 숨긴 곳이지만 소응천이 마련해준 것은 아니다.
- ② '소저'가 부모의 복수를 위해 '저'와 함께 찾아가는 곳이지 무예를 익힌 곳은 아니다.
- ④ '저'가 '선생'에게 살아야 할 곳이라고 말한 곳이지 함께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곳은 아니다.
- ⑤ '저'는 '선생'과 함께 지내려 하지 않으므로 남

은 생을 함께 보낼 곳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5. <답> ④

'기사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라는 '소저'의 당부를 따르기 위해 '저'가 '선생'을 찾아간 것은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 것이다.

#### 6. <답> ③

(가)에서는 김씨가 남장을 해서, (나)는 소저와 여인이 남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① 두 작품은 모두 여성 주인공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 ② (나)는 소저가 검객에게 칼 쓰는 법을 익혔고 이로 인해 복수에 성공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애초에 남편을 받들며 살아가는 기존 질서에 순응하였으나 결국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한다.
- ⑤ (가)에서는 비현실적 요소를 특별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 7. <답> ①

'그 딸을 더욱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더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이 작품에서 갈등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더욱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초현실적인 인물을 사건에 개입시켜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공간의 이동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등장인물의 특정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해당 행위의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8. <답> ④

연씨 부인이 일찍이 죽고 이후에 유씨를 후취 부인이 된 것이므로, 장 시랑의 연씨 부인은 유씨의 인물이 절등함을 시기, 질투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9. <답> ①

여인('저')의 말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 별도로 중재자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③ 이 작품에서 인물의 심리 변화가 상세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이 작품은 사실적 공간이 배경으로 설정되었으므로 비현실적인 공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해당 공간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⑤ 이 작품에서 소재의 다양한 의미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10. <답> ④

'혼인을 하고 싶어도 배필이 나서지 않을 것이요, 배필이 있다 한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11. <답> ④

(가)에서는 '유씨 부인'으로 인한 시련과 고난이, (나)에서는 '권세가'에 의한 시련과 고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① 두 작품에서 꿈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② 공간적 배경에 대해 감각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를 통해 인물의 감정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두 작품은 모두 초월적 공간이 아닌 현실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⑤ 두 작품에서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12. <답> ⑤

㉞ :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

13. <답> ④

김씨는 누명을 벗고 친정으로 스스로 돌아갔으므로 김씨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한 이유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① '장 시랑의 아들과 혼인한 신부 김씨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장 시랑의 전취 부인 연씨는 천고에 없는 요 조숙녀이옵더니, 자제 한 분만 두고 불행히 일찍 상배(喪配)하시고 후취 부인 유씨 또한 인물이 절 등하옵고 재질이 능란하시오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그 유씨 부인이 흥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종가를 삼으려 하여,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그 머리를 곳간 속 쌀독에 넣고 곳간 문을 잠가놓는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답> ⑤

소응천이 진정한 기사로 불리는 이유는 확인할 수도 없고, 소응천은 진정한 기사가 아니기도 하다.

① '마침 주인댁의 소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고로 특히 소저의 소꿉 시중을 들게 하였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소저는 십 세를 갓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났지요. 이 년이 지나 비로소 검객을 만나 칼 쓰는 법을 익혔고, 오 년이 지나자 드디어 공중을 날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너는 나의 한 쌍 보검을 팔아서 나를 이곳에 물어 다오. 죽은 몸이나마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너의 처지는 나와 다르니 굳이 나를 따라 죽을 것이 없느니라. 나를 땅에 묻은 다음에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 기사(奇士)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도록 하여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저는 그대로 남장을 하고서 삼 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들으니 고명한 선비로 선생 같은 분이 없다가에 스스로 결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답> ⑤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 기사(奇士)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도록 하여라.'라는 소저



의 부탁에 소응천이 고명한 선비라는 소문을 듣고 결심한 것이므로 소저의 부탁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6. <답> ③

“유씨 부인인들 지하에서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리오.”, “경솔히 발한 말이니 과연 뜻이 없거늘, 이와 같이 다시 물으시니, 그 죄가 죽기를 청하나이다.”와 같은 화씨의 말은, 시랑이 유씨 부인의 죽음에 관심을 갖게 만들면서 ‘김씨 부인이 유씨 부인을 죽인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7. <답> ⑤

‘조손이 상면 아니하지 못하리라 하고~시부를 모셔다가 조손이 단취(團聚)하오니 완전히 경가(慶家)가 되는지라.’로 미루어 보아, 김씨 부인의 아들을 만난 뒤 시랑은 기뻐하였을 것이다.

② ‘신첩은 관동 김씨가(家) 일개 비복으로~소저보다 신첩이 두 해를 먼저 낳았삽기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신랑의 원수를 갚으려 하와 남복으로 개착하고 궁심명득(窮心冥得)하온즉, 신랑의 계모 유 부인의 소위라, 신랑의 머리를 찾아 장 시랑에게 드린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답> ③

㉠은 김씨 부인을 모함하는 화씨의 태도에 분함을 느낀 옥매가 꾸민 계획이다. 화씨를 죽이려는 계획에 김씨 부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⑤ 계획이 실패하여 화씨 대신 시랑이 죽게 되자 화씨는 모든 죄를 김씨에게 돌리는 글을 유태수에게 보낸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옥매와 김씨는 옥에 갇히게 된다.

19. <답> ④

옥매는, 김씨 부인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쓴 상황에서 김씨 부인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해 승문고를 올렸다. 옥매는 승문고를 올려 황제에게 김씨 부인에 대한 참소가 부당함을 밝히고 있다.

① ‘경솔히 죽으면 의심이 더욱 들어 누명이 중할지라.’라는 김씨 부인의 생각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② 화씨는 김씨 부인의 천거로 인해 시랑의 소실이 되었는데, 그 고마움을 잊고 시랑에게 김씨 부인을 모략하였다.

③ 화씨는 자신이 김씨 부인의 단처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시랑에게는 일종의 질투로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임을 간파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⑤ ‘화씨가 그 은혜를 잊삽고 일문의 전세와 재물을 탐하여 김씨를 참소하오니’라는 옥매의 말과 전반적인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서술형 문제

20. <답> 이 작품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21. <답> 액자식 구성 방식을 활용하였다.

22. <답> ㉠은 김씨(신부)를 의미한다.

23. <답> 소저의 부모의 복수를 성공했기 때문이다.

24. <답> 먼바다와 호젓한 산중에서 노닐립니다.

25. <답> 남장 모티프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0702-3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4.21

가격 1500원

